

램 프

그녀는 불행하게도 비너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처녀였다.

수수 만년을 두고 주야로 끊임없이, 만물을 창조해 내려온 조화신(造化神)의 설 새 없는 부지런에 짜증을 낸 게으른 미신(美神)이, 그 향기로운 장미의 자리 속에 나릿하게 몸을 쉬고 있을 때 생을 받게 된 숙명을 지고 났던 것이다.

어려서부터 한 마디의 찬사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옥란(玉蘭)은 혼기에 들었으나 도무지 길년이 터지지 않았다.

홀어머니 손에 자라나 용모의 미추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배경도 뛰어난 재주도 없었기 때문에, 사춘기를 맞아 모밀꽃만치나마 피던 시절도 어언간 지나고 어느덧 삼십을 바라보게 되었다.

한약방을 하던 아버지가 남긴 약간의 재산과 알뜰한 어머니의 규모로 어느 사립 학교를 마친 후 사범 강습과를 나와 교원 생활을 한 지 십년이 가깝다.

스물여덟이라는 나이보다 훨씬 곱늬어 보이는 바짝 마른 중키에, 검누런 윤택 없는 피부이기는 하나 드문드문 난 속눈썹 때문에 어리석게 보이는 약간 불그러진 커다란 눈, 푹 솟은 광대뼈, 중턱 뼈가

블룩 튀어나온 너무나 큰 코, 벗어진 넓은 이마에 술 없는 머리를 아무렇게나 쓰다듬어 올리고, 언제나 똑같은 본색의 흰 블라우스와 감색 스커트를 입었다기보다 허리에 걸친, 쭉스러운 차림새——우람하고도 길마르고 생기 없는 노양(老孃)의 서글픔을 그녀는 지니고 다녔다.

사범 학교에 다닐 때부터 아버지 생전에 약국 단골이던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부산히 돌아다녀 흔처를 뚫어 대었으나, 선을 보고 돌아갈 때는 누구나 고개를 흔들고 걸음을 빨리하여 골목길을 나간 뒤에 “그 코허구 이마! 아유, 너무 거세서!”란 한 마디에 끝이 났다.

어머니 하나 딸 하나의 외로운 환경에서 어머니로서는 그것이 더욱 가슴 아픈 일이었으나 딸은 아주 결혼을 단념하고 아동 교육에만 몰두하는 것 같았다. 사실 결혼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는가? 그러나 옥란은 그 우람하고도 무신경해 보이는 외모 속에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몽상적이고 예리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안개같이 자욱한 봄비가 소리 없이 뜰 앞의 붉은 석류꽃을 축이는 아침이라든가, 깊은 가을밤에 먼 곳에서 들려오는 다듬잇소리를 들을 때에는 까닭 없이 가슴이 설레어 한숨을 지었고, 그것이 적이 마음의 금선(琴線)을 흔들어 주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이 되는 연애 소설을 눈물을 흘리며 탐독하였다.

좋은 선생님이라고 학부형들의 호평을 샀으나 그의 아동에 대한 사랑에는 때때로 얼룩이 졌다.

친구가 결혼을 했다든가 아이를 낳았다든 소문을 들으면 어쩐지 자기 애인이나 빼앗긴 것 같은 질투와 분노가 가슴을 육죄었고, 간혹 그들의 이혼이나 실연을 알게 되면 무한 동정을 하면서도 어딘지 잔인한 쾌감을 느끼곤 하였다. 십년 가까운 긴 세월을 한결같은 차림새로 다녔기 때문에, 그 흰 블라우스와 감색 스커트는 마치 동물의 털처럼 그것을 떠난 그녀는 상상도 못할 만치 거의 그녀의 몸의 한 부분이 되다시피 했으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가볍고 아름다운 긴 치마

와 똑 만 듯이 지은 예쁜 저고리를 입은 맵시 있는 매무새에 동경이 컸다.

자기 직업을 성스럽다고 느껴 본 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쑥스러운 차림새를 긍정해 본 일이 없었으므로, 우아한 곡선이 굽이 흐르는 긴 치마를 입고 애달프도록 정서적인 고운 맵시로 꿈꾸듯이 애인의 조용한 사랑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위치에 자기를 놓고 싶었다.

그토록 그녀는 찬사와 사랑에 굶주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미덕으로 꼽히는 겸허 소박 근면 친절이라고 일컫는 성격과 습성은 그녀에게는 자신 없는 자의 비굴과 활기 없는 타성에 지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녀는 항상 비참한 자기 비하(自己卑下) 속에서 동경에 불타는 늙은 처녀였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책상 앞에서, 램프의 등피를 닦고 있었다. 후후 입김을 뿜어 얇은 유리 등피를 골고루 닦은 뒤 그녀는 불을 붙였다. 퍼럭하고 심지에 옮겨 붙은 불꽃은 잠시 검은 연기를 뿜으며 좁은 등피 속에서 두어 번 설레인 뒤 차차 빛을 간직하여 화안하게 방안을 비추기 시작했다.

바로 그 때

“우편이오.”

하는 소리와 함께 보지 못하던 조그만 유달리 새까만 우편 집배원이 뜰안으로 들어와 하얀 양봉투 하나를 들이밀고 사라졌다.

‘또 복남이한테 편지로군.’

그녀는 걸장도 잘 보지 않고 자기 책상과 가지런히 놓인 복남이 책상 위에 그 봉투를 놓으려 하였다.

최복남이는 작년 가을에 사범 학교를 나온 젊은 여교원으로 집이 시골이기 때문에 옥란의 집에 하숙하고 있는 아름다운 처녀였다. 그녀에게는 혹은 시골 오빠한테서, 혹은 친구한테서, 또 미지의 사람

한테서——어쨌든 옥란의 집에 오는 편지는 거의 그녀에게 오는 거라고 하리만치 편지가 많이 왔다.

그러나 옥란이 그 편지를 무심히 책상 위에 던져 놓고 일어서며 문득 곁장을 보니, 분명히 달필로

‘백옥란 씨 옥안’이라고 쓰여 있지 않은가?

“누구한테서 왔을까?”

그녀는 얼른 봉투를 뒤집어 보았다.

‘돈암동 XX번지 K생 올림’

“누굴까?”

그녀는 적이 의아해하면서 봉투를 뜯었다.

편지는 줄 없는 하얀 편지지에 그리 가늘지 않은 펜으로 흘려 쓰여져 있었다. 옥란은 램프를 잡아당기고 읽기 시작했다.

오——옥란! 어찌하여 그대는 하필 옥란이었던가? 그 철학적인 잎새 그늘에서 고고(孤高)하게 고귀(高貴)하게 싸늘한 미소를 머금은 옥란!

장미의 정열도 백합의 청순(淸純)도 국화의 정절(貞節)도 그대의 그 차가운 아름다움과 고귀 앞에서는 빛을 잃으리. 그러하거늘 아름다운 여인이여! 태고(太古)의 김이 서린 이끼 푸른 바위 그늘에, 홀로 숭고한 명상에는 잠기되 그 그윽한 향기는 뿔지 말지어라.

외람한 속인이 함부로 꺾을까 두려워!

옥란 씨! 옥란 씨를 애인으로 택한 것은 나 스스로의 자랑입니다. 애인을 태양으로 우러러 겨누는 나라도 있다 합니다만 너무나 현란하여 그리움보다도 현란함이 더할 것이오. 장미나 카네이션은 아름답되 깊음이 없습니다. 옥란 씨! 당신은 너무나 ‘옥란(玉蘭)’입니다. 감히 가까이하기 어려운 고귀 속에 고고한 긍지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향 십리(聞香十里)라고 그 그윽한 향기를 아낌없이 베풀

시는 데 용기를 얻어 감히 이 조심 없는 글월을 올리는 바입니다.

신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의 두 가지로 하시고 두 사람을 합해서 하나로 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서로 이성을 그리는 것은 곧 본연(本然)이 아니오리까?

하고많은 꽃 중에서 하필 싸늘한 난을 취한 것도 한 가지 숙명이려니와 그 향기로운 몸을 싸늘하도록 깨끗하게 간직하는 높은 절개가 가시를 품고 화려히 웃는 장미보다 더욱 그립습니다.

옥란 씨! 당신과 합함으로써 완성(完成)과 광영을 보리라고 원하는 것은 너무나 버릇없는 자의 엉뚱한 소원이오리까?

옥란 씨! 당신은 한 사나이를 불행하게도 또 행복하게도 할 수 있는 운명의 여신이십니다.

이 가련하고 무력한 사람은 기대와 기우(杞憂)로 떨면서 그대의 미소를 갈망하며 붓을 놓는 바입니다.

×월 ××일 밤 K생

난생 처음 받는 사랑의 편지였다.

옥란의 심장은 소리가 들리도록 뛰었다. 입술은 바짝 타고 눈이 아롱거려 글씨가 춤을 추었다. 손이 떨리고 현기가 나서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문득 그녀는 형용할 수 없는 모욕을 느꼈다.

‘필연코 누가 나를 조롱한 게로구나! 편지투부터가 너무 경박해!’

침울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온다. 그녀는 편지를 내동댕이질 치고 독서를 할 양으로 책장에서 책을 한 권 뽑아 들었다.

두어 장 내리읽었으나 머리는 빈 채로 한 구절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 편지의 문구가 무슨 뜨거운 붉은 나비처럼 머리속에서 번쩍번쩍하며 날아다녔다. 그녀는 책을 덮어 치우고 공상에 잠겼다.

‘왜 나라고 이런 편지를 받아서 안 될 리가 있을까? 내가 일찍이

이런 편지 한 장을 못 받은 것은 그 편지 사연대로 내가 너무나 가까이하기 어려운 여자였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그는 점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옥란은 방 안을 휘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밀레의 ‘안젤라스의 종’의 복사판, 석고로 만든 마리아상, 못에 걸린 자기의 흰 블라우스와 친구집에 간 복남이가 걸어 놓고 간 자줏빛 치마, 그리고 조그만 책장과 빨갱게 칠한 경대 책상 위에는 채점하다 둔 아동들의 서투른 그림들, 파란 유리 화병 속에서 반 시들어가는 코스모스꽃, 여교원의 방다운 정돈된 가난한 방이다.

그러나 옥란의 눈에는 그것이 다른 때와는 다르게 정답고 그윽해 보였다.

그녀는 경대 앞에 가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이윽고 적지 않은 놀라움을 느꼈다.

일찍이 없던 광채가 그녀의 눈에 깃들고 뜨거운 홍조가 검누런 피부를 물들이고 무표정한 입술에는 있을라말라한 미소가 떠돌고 있었다.

램프는 무슨 신비한 광경이나 비치듯 깜박도 않고 고요히 타고 있다.

그녀는 일어서서 반침문을 열고 퀘짜 속에서 어머니가 혼수로 꾸며 놓은 하얀 긴 치마와 저고리를 꺼내어 꿈속에서 하는 것 같은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그것을 입고 다시 체경에 비추어 보았다.

홀홀한 비단 치마는 허리에서부터 아름다운 곡선을 그려 흘러 사뿐이 앉은 무릎 밑으로 서리서리 감돌아 감졌다.

옥란은 황홀한 마음으로 자기가 무슨 마법(魔法)에 걸린 것이 아닐까 의심해 본다. 그녀는 고요히 타고 있는 램프를 바라보았다.

필연코 모든 수수께끼는 그 램프에서 난 것만 같았다.

그것은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이상한 램프가 아닐까? 그 보지

못하던 조그만 새까만 우편 집배원은 필연코 그 램프의 정(精)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자기는 자기도 의식지 못하는 가운데 무엇을, 사랑을 기원하며 램프를 닦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옥란은 모든 것이 꿈속만 같고 숨만 크게 쉬어도 그만 모든 것이 신기루(蜃氣樓)같이 사라질 것 같은 애석함과 두려움으로 사지에서 힘이 탈진해 감을 어찌할 수 없었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일어나자마자 어제 저녁에 채워 두었던 책상 서랍을 두려움과 기대로 가슴을 조이며 조심스럽게 열었다.

어제 저녁 일이 꿈이 아니었던 증거로 하얀 봉투 속에서 그 편지는 나타났다.

옥란은 그날부터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처녀가 되었다.

대체 그가 누구일까. 그녀는 K를 머릿자로 가진 성을 더듬어 보았다.

‘강(姜) 김(金) 고(高) 구(具)’

꽤 범위가 넓다.

김씨라면,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한 학교에 다니는 미술 선생인 김상옥 씨가 아닐까? 동양화를 하는 그는 난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도학자니깐 그런 열정적인 연애 편지를 쓸 리가 없고!

그러면 명랑한 체조 선생 김현진 씨? 아니 그는 씩씩한 운동가다. 사랑하면 대담하게 프로포즈할 것이지 되남스럽게 K생이니 무어니 할 리가 없다.

그러면 일학년 담임인 김동오 씨?

천만에 밤낮 “아가야 나와 놀아”만 부르는 그 뚱뚱한 늙은 어린애가 난의 정서를 이해할 리 만무하고.

김씨 외에서 찾는다면 혹 자기가 도서 구입을 맡고 있느니만큼 접촉이 잦은 젊은 서점 주인 구정민 씨?

그러나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다.

그러면 언제나 우울한 대학 병원 의무실에 근무하는 젊은 의사 강용섭 씨?

그러나 그는 니힐리스트니깐 마치 동백나무를 산다과(山茶科)에 속하는 식물로 취급하듯이 사람도 포유류(哺乳類)에 속하는 동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연애 편지가 아랑곳 있을 리 없다.

그럴듯한 사람은 그 밖에도 몇 사람 있었으나 모두 조금씩 초점이 어긋났다.

편지의 문구로 미루어 보아

첫째 ‘그 사람’은 미혼일 것이다. 애인과 함함으로써 완성을 하겠다는 사연이 있으니까.

둘째로 ‘그 사람’은 가장 취미가 고상하고 심지가 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통 청년같이 화려한 장미에는 애정을 느끼지 않고 고고한 난을 사랑한다 하니.

셋째 그는 자기에게 절대적인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기대와 기우로 떨면서 고대한다고?

그만하면 모든 조건을 다 가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상의 남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 누구일까? 그 미지의 사람은 불원 신비의 장막을 헤치고 옥란의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조그만 집을 가질 것이다. 아주 아담하고 깨끗하고 평화스럽고 사랑에 넘친 가정을, 온후하고 의젓한 남편과 근면하고 상냥하고 명랑한 아내인 자기는 그녀가 사랑하는 이학년 반장인 성무형 같은 머리 좋고 귀염성스러운 아들을 또 가지게 되겠지—— 그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마음껏 쉬고 평화스럽게 인생 향로를 가게 될 것이다. 옥란의 공상은 한없이 즐겁게 퍼져 갔다.

아무렇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름다운 일이었다.

하늘은 더욱 푸르고 바람은 향기롭고 새들의 지저귌도 행복을 노래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비로소 그 흰 블라우스와 검색 스커트를 벗었다.

밤이면 복남이가 잠든 것을 기다려 얼굴을 마사지한 뒤 ‘그이’한테 인사를 보내고 자리에 들었다.

몹시 부끄럽고 겸연쩍은 일이었으나 분과 연지로 얽은 화장을 하고 미용원에 가서 난생 처음 퍼머넌트도 하였다.

이리하여 그녀는 그 누구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되려고 노력하고 그 편지의 문구대로 의식적으로 고귀하고 고고하고 싸늘한 아름다움을 간직하려고 애쓰며 다음에 또 올 것을 고대하고 날을 보냈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무 일도 없이. 또 일주일이 지났다. 역시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한 달이 가고 또 한 달이 지났다.

옥란은 차차 또 모든 것이 다 그 마법의 램프의 장난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자기에서 행복을 갖다 준 그 마법의 램프는 자기도 모른 사이에 험상궂은 악한이 가짜 램프와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어느 날 밤 옥란과 복남이는 어쩐지 둘이 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깥은 바람이 불고 찬비도 뿌렸으나 방안은 훈훈하고 안온하고 사람을 그리게 하는 밤이었다.

자리에 누웠던 복남이가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 앉더니

“당최 잠이 와야지.”

하며 성냥을 더듬어 램프에 불을 붙였다.

좁은 등피 속에 자욱하게 서렸던 김이 차차 사라져 방안이 환해지자 복남이는 말없이 불꽃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언니 난 약혼했어요.”

한다.

“응 그래?”

옥란은 불빛에 비친 아름다운 젊은 친구의 꽃같은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복남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갑자기 웃기 시작

했다. 이윽고 그는 미안하다는 듯이

“아니야, 문득 생각이 나서 그랬어. 글썄 그이가 그러는구료. 복남이란 이름은 너무 산문적이라구. 무슨 까닭인지 참엔 내 이름이, 옥란이라구 그러는 줄만 알았대.”

그녀는 불을 들여다보며 말하다가 친구의 대꾸가 없는 것을 보고 고개를 돌렸다.

“언니 잠이 들었수?”

옥란은 대답이 없고 고요히 잠이 든 모양이었다.

이튿날 옥란은 반침 속에 쭈셔박았던 그 흰 블라우스와 검색 스커트를 꺼내 입고 학교에 나갔다.

다시는 운명의 장난거리는 안 되리라고 굳은 결심을 하면서.

(1946. 8.)